

교육과학기술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선정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 유수의 명문대학과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만날 수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명품 교육이 당신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 장학금 수혜율 1위 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4호선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

ISSN 2005-2049



00

2010 DT BRAND POWER
DT 브랜드파워대상

SCU e야기

e 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9

Cyber World | 미디어의 지각변동,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SCU Today | 서울사이버대학교 U-Campus 본격 구축
여기 e 사람 | 석좌교수 이승한 · 동문 이복일 · 멘토 손연화 · 멘터 신희숙
Special Theme | 뉴 비즈니스의 혁명, 「창업지도사 과정」

제 9 회 신 일 스 승 상 시 상 식

2010년 5월 15일

학교법인신일학원



신일스승상위원회

차이코프스키홀



사진 · 제9회 신일스승상 수상자와 함께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이날 영예의 수상자로는 초등학생들의 예절교육과 환경교육 실천에 앞장서온 한종현 상품초 교사, 열린 교육과 개별화 교육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김명순 휘경초 교사,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 전도사로 국내 최초 봉사활동 교과서를 집필한 이은선 서호중 교사, 부적응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명채 서울 창문여고 교사,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평생을 공교육 발전에 힘써온 고동준 경동고 교사, 농업교육 현장에서 미래의 농업인 육성에 헌신한 김진관 이천제일고 교사, 장애학생들의 사회화 활동을 길러주고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자료를 직접 제작·교육해온 조귀영 자혜학교 교사 등 7명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 1 제9회 신일스승상 시상식 수도권 지역의 초, 중등학교에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숨은 공로를 찾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에 제정된 신일스승상이 올해로 9회를 맞았다.
- 2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거행하는 신일스승상은 스승에 대한 표상을 기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신일스승상 시상식에서 고 이봉수 이사장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고 있다.
- 4 신일스승상 영광의 주인공들 154명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추천된 가운데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휘경초등학교 김명순, 경기상품초등학교 한종현, 서호중학교 이은선, 경동고등학교 고동준, 창문여자고등학교 이명채, 이천제일고등학교 김진관, 자혜학교 조귀영 선생님.

신일스승상 수상소감 | 서울휘경초등학교 김명순 선생님

열정 다했던 교직생활의 힘 있는 마침표!

신일스승상 추천을 계기로 지난 41년간의 교직생활을 찬찬히 되돌아볼 특별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는 8월 정년퇴직을 앞둔 시점이라,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왔던 교직생활을 검증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커다랗고 힘 있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뻛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과연 스승이란 호칭을 들은 만한 교사였는가?' 의문이 들었지요. 늘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내 부족함에 더 주지 못한 건 없었는지, 내 말에 상처받은 어린 마음들은 없었는지,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허물만 떠오르더군요. 그래도 열정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는 미술치료가 되어 마음 아픈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고픈 바람이에요.



앞으로 신일스승상 수상자의 명예를 가슴에 새기고 말과 행동,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일학원 설립자 고 이봉수 이사장님의 교육이념을 기리기 위해 평교사에게 이런 귀한 상을 마련해 주신 학교법인 신일학원과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한 교사'로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빛 되어주셨던 큰 발자국을 한걸음씩 따릅니다.





● CYBER WORLD

미디어의 지각변동...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사이버대 최초 아이폰으로 수업

이제 더 이상 '네티즌', '블로거'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현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역할마저 자처하고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5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면에도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한 투표참여 독려가 큰 힘이 되었다. 그만큼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글 | 편집부

매 일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인터넷에서 정보를 '취득' 하지만은 않는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정보를 '생산' 해내는 시기가 된 것이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전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 혹은 의견을 발행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기면서 여론이 형성된다.

혹은 오피니언 리더의 트위터를 팔로우(follow)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사람이 140자 이하의 코멘트를 남기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세 확인할 수도 있다. 때로는 신변 잡기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이따금씩은 평범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고급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루트가 되기도 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수업을 듣는 모바일 러닝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강의 수강은 물론, 학습 진도율, 학사정보 확인 등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우리 곁에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에서 비롯되는 여론의 파급력은 넓고 크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테러나 전쟁의 현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즉시 전 세계에 공개되기도 할 정도다. 인쇄매체나 영상매체가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강력한 스피드와 정보생산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 현상은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과연 무엇일까? 소셜 미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톨과 미디어 플랫폼으로, 가이드와이어 그룹의 창업자인 크리스 쉬플리(Chris Shipley)가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사용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를 소셜 미디어라 부른다.

소셜 미디어의 장점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내용을 확장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네티즌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거듭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덕분에 누구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수의 인원만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누릴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소셜 미디어 혁명은 계속된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말하자면, 5천만 명의 사용자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라디오 38년, 텔레비전 13년, 인터넷 4년, 아이팟 3년이었던 데 반해 페이스북은 불과 6개월 만에 그 기록을 돌파했다. 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젊은 계층의 약 96%는 소셜 네트워크에 동참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2억 개 이상의 블로그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중 54%에 매일같이 새로운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온라인교육의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공식트위터(http://twitter.com/iscu_univ)를 개설하여 학교소식과 학과소식, 학업 및 취업, 진학 관련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덕분에 재학생들은 물론 온라인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과도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수업을 듣는 모바일 러닝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강의수강은 물론, 학습 진도율, 학사정보 확인 등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기업들 역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미 글로벌 100대 기업의 79% 이상이 적어도 하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에서도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물론 엄청난 인원이 소셜 미디어에 동참하고 있지만 모두가 주목받거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선별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성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혁명은 날로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토론방,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티즌끼리 의견을 공유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공식트위터(http://twitter.com/iscu_univ)를 개설하여 학교소식과 학과소식, 학업 및 취업, 진학 관련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덕분에 재학생들은 물론 온라인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과도 구체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U-Campus 본격 구축

미래형 원스톱 교육 서비스 실현되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추진 중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50억원 이상의 예산에, 준비와 검토 기간을 제외한 본격 구축사업만 일 년 반이 소요됐다. 마침내 국내 사이버대학교 사상 최고, 최대 규모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의 결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았다.

글 | 편집부

더 이상 데이터의 분산과 중복 및 불일치,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용자의 낮은 정보 활용도, 웹 환경의 다양한 시스템이 혼재한다는 편견은 버려라. 표준화된 데이터, 통합 및 전환이 용이해져 다양한 구성원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정보서비스가 제공되는 단일 환경의 시스템이 온다. 사이버대학 글로벌 리더를 모토로 씬 없이 기록을 갱신해 왔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0년 여름, 또한 차례의 놀라운 비상을 앞두고 있다.

사용자 중심의 종합정보시스템

서울사이버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환경 및 기반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스템 정보서비스의 개선과 업무처리 환경을 보장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새롭게 탈바꿈된

종합정보시스템은 8월 중순경에 오픈해 2학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말경에 개발을 완료해 단위별 성능 테스트를 거쳐, 7월경에는 실 사용자인 학생 신청자들을 선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다. 전혀 새로운 시스템 정보서비스의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시스템 완성 뒤의 기대효과다. 특정 사용자가 아닌 대학의 각 구성원들 즉 학생과 교수, 교직원, 경영자에게까지 편의와 만족을 제공한다. 학생에게는 포털을 통한 원스톱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각종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강화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 간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교수로서는 강의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IT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보, 지식, 업무에 용이한 접근 및 정보 공유와 검색을 통해 학생 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교수의 행정처리 업무 및 학생지도 관련 업무의 편의성도 제공한다. 교직원에게는 업무 프로세서 간소화 및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간 정보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공해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표준화된 행정업무의 정착 및 선진화된 제도 구현도 가능해진다.

대학과 경영자로서는 의사결정 지원 강화, 교육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통해 대학이미지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어디까지 왔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들의 편의향상에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학습지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강화하고 학사, 학습 정보들에 대한 접근 편리성 제고 및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4단계를 밟으며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1단계로 사이버대학 제반업무 현황에 따른 분석과 모델 수립, 업무 프로세서 개선과 정보화전략 계획수립을 했고, 2단계로 각종 시스템에 대한 분석설계를 완료했으며, 3단계로 분석설계에 따른 개발과 정보인프라 도입을 시작했다. 마지막 4단계는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포함해 시스템 구축과 세부항목에 대한 고도화다. 현재 시점은 바로 이 4단계의 테스트 과정이다.

현재 막바지에 이른 종합정보시스템은 8월 중순경 오픈해 2학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말경에 개발을 완료해 단위별 성능 테스트를 거쳐, 7월경에는 실 사용자인 학생 신청자들을 선발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엄중한 테스트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다. 약간의 문제점이라도 발견된다면 9월에 오픈하는 시스템은 베타테스트를 통해 기존의 시스템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 현 체제로 수업을 듣더라



Mini Interview

박용원 행정처장

시스템 완성도와 안정성에 만전 기할 터

박용원 행정처장은 요즘 마음이 바쁘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 가동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인 학생과 교수, 교직원, 대학과 경영자까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오픈해야 한다는 의지와 책임감이 막중하다.

“시스템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 말경에는 시스템 오픈을 위한 단위 성능테스트를 하고, 7월 중에는 학생 신청자들을 받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2학기에는 정식 오픈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박용원 행정처장은 덧붙인다. 국내 사이버대학으로서는 유례없는 최고, 최대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사용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욱이 완성도와 안정성을 위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오픈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오픈 뒤의 오류 방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모두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픈 초기에는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접속한다면 예상치 못했던 사소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포털을 통해 자유로운 정보서비스를 오류가 전혀 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의 포털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박용원 처장과 50여 명의 팀원들이 만들어 낸 성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박용원 행정처장은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더욱이 완성도와 안정성을 위한 엄격한 테스트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한다.

도 베타테스트 프로그램으로 모바일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다양화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과는 달라진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사용자, 특히 학생 사용자에게 있다. 학생 사용자가 활용하게 될 시스템이 전체의 30%라면, 나머지 70%는 이 30%를 안전성 있게 만드는 서포팅 시스템인 셈이다. 완성도 높고 안정적인 통합 종합정보시스템의 미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글로벌리더로 만드는 데 큰 바탕이 될 것이다.

경상학부 이승한 석좌교수(홈플러스 그룹 회장) 살아있는 경영노하우 전수하는 ‘1조 원의 사나이’



이승한 교수는 홈플러스 그룹에서 1999년부터 12년째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다. 그는 대형마트 중 가장 후발 주자였던 홈플러스를 3년 만에 업계 2위에 올려놓은 마트업계 마이다스의 손이다.

‘1조 원의 사나이’. 이것은 홈플러스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상학부 이승한 석좌교수의 별명이다. 이 별명이 붙여진 이유는 1999년, 업계 꼴찌로 출발한 홈플러스의 매출을 매년 약 1조 원씩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홈플러스는 10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우연이 아닌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 그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석좌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글 | 편집부

이승한 교수는 시골 정미소집 일곱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삼성그룹 공채 11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른바 ‘1조 원의 사나이’가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승부사 기질은 위기 때 빛을 발했다.

이 교수는 IMF 경제위기로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지분을 해외에 매각하려고 할 당시 삼성물산 유통부문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은 해외업체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최종 영국의 세계적인 유통기업 테스코그룹과 합작 협상을 진행했다. 그때 이 교수는 사표를 가슴에 품은 채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장부가보다 200억 원을 더 받아냈다.

이에 테스코그룹은 이승한 교수의 협상력과 불굴의 의지에 감동받아 합작기업의 초대 최고경영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에서 삼성테스코로 옮긴 직원들은 좌천된 기분으로 복도에서 하염없이 담배를 피워대며 업계 꼴찌로 출발한 회사의 미래를 불안해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5년 이내에 업계 1위에 오르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내 생애 가장 큰 행운...SCU와의 만남

누가 공부에도 때가 있다고 하였는가?. 올해로 일흔 살인 이복일(세무회계사, 부동산학과 07년 졸업) 동문은 그 명제가 무색하리만치 아직도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뜨거웠다. 건강이 여의치 않았던 그가 학업을 중단한 지 장장 40년 만에 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등장 덕분이었다. 이복일 동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만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운' 이었다고.

글 | 편집부

소 박하지만 정갈하게 단장된 사무실 한 켠, 탐처럼 쌓아 올린 책 더미 사이에서 은발의 신사가 인자한 미소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자랑하는 불굴의 만학도 이복일 동문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공부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복일 동문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에 있으면서 학업을 병행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았어요. 부동산 관련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도전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여건이 안 되어 포기해야 했지요.”

지난 24년간 재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낸 이복일 동문은 1972년, 당시에는 유일했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 입학한 바 있었으나 직장 업무가 과중하여 1년 만에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회한과 열망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있다가 화산처럼 뿔어져 내린 날이 있었으니, 조선일보에 실린 '서울사이버대학교 2005년도 신·편입생 모집 요강' 공고문에서 부동산학과를 발견한 순간이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고 꿈을 버리지 않으니 기회가 오더군요. 그런데 지원을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처럼 나이도 많고 컴맹인 사람이 과연 사이버대학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과감히 편입원서를 작성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소소한 두려움이 대수였겠습니까.”

우수한 학점으로 주어진 교과목을 완벽하게 이수하여 경영학까지 복수전공할 수 있던 이복일 동문. 실제로 그는 졸업한 후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론·투자론·중소기업관·창업지도사 과정 등을 수료하며 남다른 학구열을 드러냈다.

“강의마다 얼마나 재미가 있던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집에서 핀잔도 종종 들었지요. 학교생활하면서 오히려 체력이며 시력도 더 좋아졌는데 말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존재와 장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생업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될 테니까요.”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육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추천으로 후배들의 입학울 돕는 SCU 캠페인에서 '최다 추천인 상'을 받은 경력이 있을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이복일 동문의 애교심은 그야말로 특별했다.

“부동산학이라 하면 누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떠올리게 될 만큼 세계적인 학교로 급부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동산산업이 우리 SCU 출신 학우들에 의해 발전 및 활성화되었다는 평가를 어디에서건 들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지요.”

이쯤 되면 진정한 '서울사이버대학교홀릭'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며 스스로를 독려하는 이복일 동문의 남다른 각오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지난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하며 삼성테스코와 홈플러스 테스코, 베이커리 회사인 아띠제 블랑제리, 홈플러스 e과란재단 등과 함께 홈플러스 그룹을 출범시켰다. 또 2005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홈플러스 성공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직원들과의 약속도 지키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쇼핑 습관에 맞춘 현지화 전략으로 까르푸·월마트·마이크로 등 세계 유수의 대형마트들이 철수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매장 운영 방식을 영국 테스코로 역수출했다. 현재 영국에서는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17개 점포가 성업 중이다. 이와 같은 성공은 일본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달려온 이승한 교수는 젊은이들을 향한 지침서 『창조바이러스 H₂C』를 발간하고, 책과 강의를 통해 창조바이러스 전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저서를 통해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성공의 중심에는 ‘창의성’이 있었다”며 ‘긍정적인 눈, 뜨거운 열정, 높은 비전, 거침없는 상상과 변화, 포기하지 않는 집념’ 등이 바탕이 된 ‘창조바이러스’를 퍼뜨린다면 꿈꾸던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아내 엄정희 교수(가족상담학)도 최근 『17일간의 부부향해 내비게이터』를 발간하고, 해당 분야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며 이승한 교수의 저서 『창조바이러스 H₂C』와 함께 ‘부부 동반 베스트셀러’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멈춤 없이 정진하고 있는 그의 행보는 경영인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멘토 손연화 & 멘티 신희숙

우리는 하나 같은 꿈꾸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학사일정이나 성적관리 등 모든 면에서 학생이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학업성취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후배간의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생활의 도움은 물론 정신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우수 멘토링 그룹으로 꼽히는 ‘미녀 속의 늑대’ 리더인 상담심리학과 손연화 멘토와 신희숙 멘티로부터 따뜻한 사연을 들어본다.

글 | 편집부

‘미녀 속의 늑대’ 라는 재미있는 그룹명은 구성원 대다수가 여학생인데서 기인했다. 손연화 멘토와 한 명의 멘티를 제외한 12명의 멘티가 여학생이기 때문이다. 이 멘토링 그룹은 거주지에 인접한 일산지역에서 만나 저녁식사나 차를 함께 하며 스터디결성 및 운영방법, 학사일정, 학점관리, 자격증취득 등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멘토링 운영사례로 꼽히고 있다. 손연화 멘토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편입생 멘티에게는 효율적인 학업관리 및 학교생활의 궁극증을 해소하고, 멘토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 멘티들을 적극 지원하며 책임감과 행복을 얻는 win-win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새 출발에 힘이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

신희숙 제가 친해지기까지 낮을 좀 가리는 편이라, 첫 모임 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안 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멘토님을 비롯해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할 기회를 놓쳤을 테니까요. 그런데 멘토님은 어떻게 멘토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손연화 네. 사실 멘토링에 참여한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늦게 학업을 재개한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많거든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어요. 직전 학기 학점이 3.5 이상이라는 것 외에는 멘토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던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멘티 경험이 있었다면 더 잘해냈을 거라 생각돼요.

신희숙 하지만 전 멘토님 보고 무척 놀랐는걸요. 현역군인이라고 하셔서 무뚝뚝할 것 같았는데 자상하고 유머러스하셔서요. 우리 그룹에 멘티가 13명이고, 그중 몇 명은 멘토님보다 연장자시잖아요. 그 모두를 끌어안는 멘토님의 리더십이 있어서, 단합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손연화 말씀대로 전 해병대 2사단에 근무하는 군인이잖아요. 직업상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병이나 동료들을 만나면서, 심리 상담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막상 사이버대학에 편입했을 때 혼자 학업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죠. 우리 멘티님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했어요.

신희숙 전 어릴 때부터 상담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심리학과에 진학했지만 졸업할 수 없었어요. 취업을 했고, 작년에는 결혼도 했지만 끝마치지 못했던 학업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어느새 나이 서른,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절박감이 들더라고요.

손연화 그래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가 멘토로서 도와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아실 거예요.

일회적 관계 아닌 같은 꿈꾸는 평생지기

신희숙 사실 얼마 전에 대학동기를 만났는데 학교 상담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못 이룬 꿈을 먼저 이룬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편입하면서 꼭 대학원 진학까지 뒷바라지해달라고 남편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만일 상담교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남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손연화 멘티님은 잘해내실 거예요. 멘토링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입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선후배 관계 개선 및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도록 학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진은 올 2월 개최되었던 멘토링 결연식 장면.

뿐만 아니라 학과 및 학교행사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잖아요. 학점이 나 진로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려는 멘티님의 자세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의 ‘본’이라 생각해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신희숙 칭찬해주셔서 감사해요, 멘토님. 제가 이번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을 얻었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전에 MT 갔을 때 기억나세요? 그때 2시간 정도 멘토님과 함께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가족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억나요. 학업이나 학교생활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선배님이세요.

손연화 과찬이십니다.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를 돕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동반 성장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멘토가 구심점으로서 편안한 분위기와 정보전달의 책임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룹 멘티님들이 가진 다양한 자질과 장점들은, 졸업 후에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거라 믿습니다. 멘티님은 앞으로 계획이 뭔가요?

신희숙 네. 일단 학생으로서 성실해야겠죠? 작년부터 참여해온 환경운동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상담심리 분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 팀원들과 꿈을 공유하면서, 이 행운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요. 멘토님은요?

손연화 저도 그래요. 학기가 마감되면 이번 프로그램도 종료되겠지만, 2학기 때까지 매칭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학교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 일회적 멘토링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결속력과 상호 멘토가 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팀 모두가 훗날 학과 후배들에게 그룹 멘토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손연화 멘토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입, 편입생 멘티에게는 효율적인 학업관리 및 학교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멘토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 동원해 멘티들을 적극 지원하며 책임감과 행복을 얻는 win-win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한다.



상담교사를 꿈꾸던 신희숙 멘티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편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심리분야의 일원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뉴비즈니스의 혁명 ... '창업지도사' 과정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미래지향적 기업가 정신 배운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말하길, “우리는 경영(Management)의 시대를 지나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기업가(Entrepreneur)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기업가 정신은 미래 사회의 주축으로 살아가기 위한 미덕이자 필수 불가결의 요소란 뜻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그 가치를 일찍부터 파악, ‘창업지도사’ 과정을 개설하여 21세기가 절실히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글 | 편집부

국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문경영인을 배출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007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창업지도사’ 자격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과감하면서도 다채로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하는 ‘최우수 사이버대학교’에 선정되는 등, 명실 공히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SCU와 JIU가 공동 수여하는 글로벌 자격증

급변하는 경제 동향에 따라 세계가 선호하는 비즈니스맨의 유형도 달라지기 마련. 이에 부응하는 소양을 올바르게 갖추려면, 오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가늠 및 설계할 수 있는 식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부지불식간에 도태되기 쉽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창업지도사(Entrepreneurship)’ 수업이야말로 그러한 화두를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단언한다. 비단 경영뿐 아니라 기업가로서의 정신이 핵심 관건으로 우뚝 선 까닭이다.

국내외 비즈니스계가 주목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창업지도사 과정은, 미국의 명문 온라인대학교인 Jones International University (JIU)와 함께 협약 하에 진행되는 국제적인 교육과정이다. 기업의 창업은 물론이고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마인드와 지식을 보다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이 교육은 대학 본질에 맞게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두 대학이 모두 인정하는 총장 명의의 자격증이기 그 의미가 특별하다.

미래의 창업전문가와 CEO, 경영전문가 속속 탄생

2006년도 노벨경제학 부문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Edmund S. Phelps) 교수의 주문처럼,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업가 정신을 고양케 하여 국가의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고로 연구한다. ‘창업지도사’ 과정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창업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업가 정신의 이해 · 벤처 창업을 위한 사업성 분석 ·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 실무 · 기업 윤리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벤처 창업을 위한 사업성 분석’ 단계는 JIU에서 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창업지도사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입, 국가경제력 증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창업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가 추구하는 CEO 및 경영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Mini Interview

경상학부 임태순 교수

입체적이고 폭넓은 사고 배양에 최선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층 입체적이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창업지도사 과정의 최대 목적입니다.” 경상학부의 임태순 교수는 ‘기업가 정신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대인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이란 창업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지도사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기업가 정신이 지니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는 임 교수. 그는 진보화된 기업가 정신을 두루 확립하여 경제 성숙에 다방면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앞장 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힌다.

공하는 강의 자료를 한국어로 풀이해 운영되며, 남은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 실무’와 ‘기업 윤리’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정규 교과목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게는 미국 JIU 내의 MBA과정 입학 시, 2과목을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특전이 적용된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재학생은 수강신청을 통해서, 일반인은 시간제 등록을 이용하여 창업지도사 교과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네 과목을 각각 70점 이상으로 이수하면 창업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만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반드시 그 사실에 부합하는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평균 6개월만 투자하면 인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증을 거머쥌 수 있다 하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참고로 제5기에 해당하는 창업지도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전국 5개 대학(서울대 · 이화여대 · 고려대 · 연세대 · 성균관대)으로부터 추천 받은 장학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 부동산 위기와 경제회복 전망

하버드대 리처드 페이지 교수 특강

지난 5월 1일, 미국 하버드대 부동산학과 리처드 페이지(Richard Peiser) 교수가 '세계 부동산 위기와 경제회복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페이지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동산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부동산시장과 세계경제를 전망하였다.

특강에서 페이지 교수는 'Global Economics Indicator', 'Real Estate Market', 'Korea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Investment & Distressed Assets'라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체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주요 각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시작으로 실업률, 평균 주간 노동시간,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현황지표, 대출이자율, 소비자 물가 변동률, 주식시장지표, 미국경제 사이클, 경제현황, 사무직 동향 및 흡수율, 미국 내 공공시장과 과거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의 첫째 장을 열었다.

둘째 장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지수 얼마나 떨어졌나?'라는 질문으로 포문을 열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 종류에 의한 사이클, 미국의 거래가격 부동산 거래지표, 미국 내 부동산 공실률, 건물 크기에 따른 산업용 건물 공실률, 심화되는 공실률, 과거지표 현황 및 예측, 오피스건물 공급 현황 등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매입자 구성과 자본특성에 따른 매입자 구성을 설명하였고,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질적인 그래프와 차트를 가지고 설명했다.



리처드 페이지 교수는 뉴타운 개발, 도심 성장, 개발 규제 등에 관한 주제를 학술자널에 꾸준히 발표해온 저명인사다.

또한 페이지 교수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에 관해 언급한 후 한국경제지표를 필두로 한국부동산 초기 수익률과 서울 오피스 시장에 관한 강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및 부실 자산에 관한 강의를 펼쳤으며,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강의를 끝으로 특강을 마쳤다. 이번 특강을 통해 선진국의 부동산 주기와 흐름을 관련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존경 받는 경찰되기 위한 '경찰과 상담'

군경상담학 이명규 석좌교수 경찰대학 특강

강원지방경찰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던 군경상담학과 이명규 석좌교수가 경찰대학에서 '경찰과 상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재직 중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간부로서 주목 받았던 이명규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며 참석자들에게 '경찰청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던졌다. 이 교수가 생각하는 경찰청장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경찰이 상담기술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관계의 유형에는 '경찰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 '경찰간부가 문제직원을 상담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문제직원을 상담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경찰 자체적으로 상담능력을 키우면 경찰의 외부 신임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징계나 온정주의에서 비롯되는 폐해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들의 상담기술 습득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교수는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카운슬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지역캠퍼스' 행복 싹틔우는, 소통의 또 다른 공간



사이버대학이라 하여 온라인 시스템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전국 7개(경기·인천·강원·논산·대구·부산·호남) 도시에 지역캠퍼스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다.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두루 살피고 자 하는 학교 측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하다.

글 | 편집부

서 울사이버대학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6년 2월 부산을 시작으로 총 7개 도시에 재학생들을 위한 전용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캠퍼스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소속 조교가 늘 자리하고 있어 학생들은 언제든지 학습에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배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역캠퍼스를 자유롭게 방문하여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담당교수제가 정립돼 있어 상담은 물론, 다양한 내용의 특강을 펼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도에 힘쓰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본교의 전임교수가 지정된 지역캠퍼스에 순서대로 방문하여 8시간 동안 각종 상담관리를 하는 '만남의 날'을 시행한다. 또한 지역캠퍼스는 정규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특강이나 실습을 연계하는 형식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용도로도 활용된다.

모든 지역캠퍼스에는 약 2,500여 권에 달하는 학과별 전공도서와 교양도서가 고루 비치되어 있으며, 재학생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분야별 베스트

셀러 도서들도 마련해 놓고 있다. 원칙상 전공도서는 되도록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판매 대출만 허용하는데, 상황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조교(지역도우미) 또는 지역회장의 허락 하에 관외 대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서울사이버대학교 지역캠퍼스에서는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매년 1월/8월), 사회복지현장 및 보육실습 평가회, 멘토링 오리엔테이션, 컴퓨터 기초 활용 강좌, 스터디 모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대학과 차별화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그러한 노력 때문인지 SCU 지역캠퍼스는 각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곤 한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유명 교수나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봉사 활동 등 지역을 위한 행사들을 통해 항상 주민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꾀한다.

참고로 논산에 위치한 연무대지역캠퍼스의 경우 군부대란 특수성 때문에 육군훈련소의 간부들과 훈련병에 한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최근에 개관한 인천지역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시설을 한층 확대, 진보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다.



호남



대구



경기



부산



강원



연무대



인천

Movie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 추천 드래곤 길들이기

‘슈렉’, ‘쿵푸팬더’로 세계를 평정한 애니메이션 명가 드림웍스가 선보이는 신작 ‘드래곤 길들이기’는 신나는 어드벤처와 화려한 볼거리가 있다. 또한 ‘크레시다 코웰’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가 전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안겨주며 관객과 평단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는 용맹한 바이킹과 사나운 드래곤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신화적 세상 벌크 섬을 배경으로 바이킹 족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연약한 소년 히킵이 펼쳐는 스펙터클 한 모험을 그린 3D 플라이 어드벤처물이다. 이 영화는 3D 애니메이션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실제 같은 입체감과 훑날리는 머리칼, 그리고 롤러코스터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활강은 놀라운 시각적 쾌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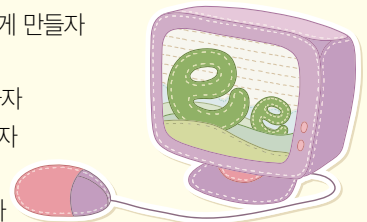
Netiquette

인간의 정 듬뿍 담은 사이버 공간

SCU이야기에서는 이번 호부터 네티켓(Netiquette) 코너를 신설한다. 네티켓이란 Network와 Etiquette의 합성어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이버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예절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과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거나 타인의 감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보 문화를 위해 현실공간보다 더욱 더 네티켓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을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이버 공간의 주인인 우리 학생들이 최소한 지켜야 할 규범을 주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먼저 네티켓 10원칙을 제시해 본다.

네티켓 10원칙

1.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2. 실제 생활에서와 똑같이 행동하자
3. 현재 자신이 접속한 곳의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자
4.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자
5.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자
6.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자
7. 논쟁은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자
8.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자
9. 특권을 남용하지 말자
10.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자



Book

김선정 교수 추천 그림 읽는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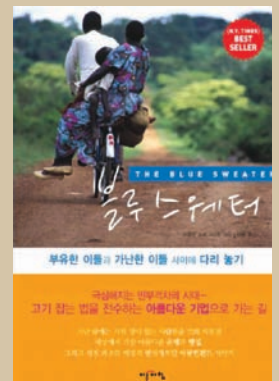
이 책은 세계적인 ‘영화’와 영화를 탄생시킨 거장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창의성’을 깨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저자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꼽는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의 눈으로 세상 보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영화 감상’이다. 1부는 예술가들이 창조한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기술을, 2부는 예술가적 창의성을 혁신의 원동력으로 삼는 기술을, 3부는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빌어 자신을 재창조하는 기술을 정리했다. 각 장 끝에는 독자들이 예술가적 창의성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했다.

이명옥 지음, 21세기 북스(2008)

심선경 교수 추천 블루스웨터

자선과 기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어낸 비영리단체 ‘어큐먼펀드’ 창시자, 재클린 노보그라츠의 모험기를 생생하게 그려낸 책. 은행에 다니던 저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아프리카에 과감하게 뛰어든다.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좌충우돌한 초창기에서부터 선구적인 기구를 설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내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재클린은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잘나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던 중 뜻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의 길을 선택한다. 이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그녀가 어린 시절 즐겨 입던 ‘블루스웨터’. 이 책은 경쟁에 놀려 사는 우리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과 이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한 여성의 경험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클린 노보그라츠 지음, 이른아침(2009)



PUZZLE

아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 퀴즈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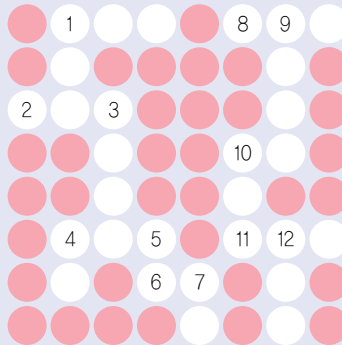
가로열쇠

- 2010 남아공 ○○○
- 중 · 고등학교 때 등교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간부학생들. ○○부
- 엄마 친구 아들의 준말
-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 140자로 소통하는 인터넷 혁명.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구를 맺을 수 있다
- 1회부터 등판하여 던지는 투수
- 날씨를 알려 주는 정부기관

세로열쇠

- 인천의 대표적인 데이트 코스
- 삼강오륜 중의 하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음
-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까치 오혜성의 여친
- 기도 맨 마지막에 하는 말
- 외국인을 위한 영어테스트(TOEFL)
- 여유가 조금도 없이 몹시 질박한 순간
- 여름의 필수품
- '대학'을 비유하는 말

2010 여름호 문제



2010 봄호 정답



■ 2010 봄호 당첨자 & 한마디

• 백경원(서울시 중구 순화동)

올해 불가피한 등록금 인상 때문에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 이보배(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사이버대학 특성상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는데, 우편으로 소식을 받아볼 때마다, 내가 정말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기대할게요~.

• 이은선(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소식이나 동정 등을 특히 많이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 백현진(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혜택들, 예를 들면 해외탐방의 기회를 이렇게 잡아라, 복수전공 노하우나 조기졸업하는 방법, 자격증 다수 취득의 방법 등을 다루어주셨으면...

• 현 정(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앞서가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진 서비스 및 블로그, 트위터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젯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수 교수 추천 똑똑한 돈(Smart Money)

이 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제불황을 '거대한 신용팽창과 신용수축이라는 경제주기의 커다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다양한 도표와 사진, 그래프를 곁들였다. 이 책의 특징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접하였던 금융경제의 현상을 아주 쉽게 저술하였다는 점이다. 돈의 역사에서부터 경제주기, 경제지표 및 정부정책 등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들을 논리정연하면서 쉬운 단어로 기술하였다. 특히 금융현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근본원리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주어 시각적으로도 쉽게 와 닿게 한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경제지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냉철하게 기술한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나선, 이명로 지음, 한빛비즈(2009)

전광호 교수 추천 원점에 서다

「비즈니스 클래식」 시리즈 제1탄 『원점에 서다』. 이 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이 '목적의식'에 있음을 깨달았고, 획기적인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그룹은 모두가 폭죽을 터뜨리며 미래의 청사진에 부풀었던 1990년대 이 책을 필수교재로 삼으며 'Back to the basics'를 당부하였다. 즉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출간 당시 폭발적 반응을 얻으며 일본 기업문화를 바꾸어 놓았던 이 책은 삼성맨들에게 일의 원점을 짚어주며 '기본'을 다져주었다.

사토 료 지음, 강을수 옮김, 페이퍼로드(2007)



제10대 총학생회 스승의 날 사은행사

참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 한마당 잔치

서 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웅 총장을 비롯한 전 교수진과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제10대 총학생회가 한 달여 동안 준비한 이번 사은행사는 감동의 한마당이었다. 카네이션에 담긴 '감사의 꽃말'이 다가 아니었다.

행사장 입장에서부터 지정좌석에 안내되기까지 있었던 촛불로드 행진에, 감동의 물결이 잔잔하게 있었다. 착석 후에는 학과별로 준비된 감사카드 낭독이 이어졌고, 제자사랑에 무거웠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감



학과별로 준비한 감사카드가 낭독되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학생들도, 교수들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아 정성스런 사은행사를 마련하고,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스승에의 감사와 사랑을 전달했다.

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 내내 울려 퍼지던 잔잔한 피아노연주 선율과 은은하게 타오르던 촛불, 아기자기한 풍선 아트와 깔끔한 다과, 답례용으로 준비한 유기농 떡에도 학생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었던 수공예 백자패랭이도자기 쌀독에는 쌀이 아닌 만여 명 제자들의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았다.

2010 DT브랜드파워대상 영예의 대상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

최고 품질, 서비스 통한 글로벌 브랜드 구축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2010 DT브랜드파워대상' 수상식에서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주관사인 디지털타임스와 한국브랜드협회가 한국갤럽의 자회사인 베스트사이트에 의뢰해 진행되었는데, '브랜드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여성신문사가 선정한 여성 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에도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았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품질·서비스 1위는 파워 소비 집단으로 직접 기업 및 기관이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우수성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우수 브랜드를 평가하는 상이다. 서울 사이버대학교는 5회 연속 1위 수상에 빛나는 영예를 안았다.



총학생회 주최 1박 2일 신입생 연합 M.T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동안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소재한 내린천 아침뜨락 황토마을에서 신입생 연합 MT를

개최했다.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신입생들에게 사이버 교육환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선후배와의 친밀감을 도모하여 애교심을 증진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이재웅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학교소개 및 학업과정 등을 소개하였고,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신력을 강화하고 협동심을 배양하며,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 - KT MOU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3월 29일 KT 올레 빌딩에서 KT와 'SCU U-Campus' 구축을 위한 MOU 체결을 맺었다. 이번 MOU는 'SCU U-Campus'의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러닝 서비스 실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사이버대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수업강 및 출결, 커뮤니티 조성, 성적

확인, 수업 등록 등 다양한 학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KT 측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KT는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안정된 강의수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금번 2학기 본격 가동을 목표로 5월 동영상 강의와 출결 체크 등을 지원하는 1차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따라서 2학기부터 서울사이버대 재학생들은 동영상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런던대학교 대외협력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



세계적인 명문대 런던대학교 원격 교육기관 (University of London External System)의 국제협력팀장 Dr.Tangjie Ward 씨가 5월 4일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런던대학교와 본교와의 한국 내에서 원격교육(TNE distance/flexible learning) 정책의 이해와 교육협력분야의 기회모색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는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최대의 공립 종합대학으로 1936년에 설립되었으며 19개의 칼리지(college)와 9개의 인스티튜트(institute)로 구성되어 있다.

스와질란드 장관 방문, U캠퍼스 체험



스와질란드왕국의 윌슨 상가세(Hon. Wilson Ntshangase) 교육부장관이 사이버대학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6월 2일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스와질란드왕국 정부와 (사)아프리카대륙 선교회가 '스와질란드 크리스찬대학'의 과대학과 간호대학, IT대학 설립을 위해 국내의 선진화된 이러닝 시스템을 견학하고자 이뤄졌다. 윌슨 상가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페터슨 다미니 교육부장, 스와지타임즈 음빙고 음봉게니 대표로 구성된 방문단은 본교의 촬영스튜디오, 국제회의실, 강의실 등 캠퍼스를 둘러보고, 언제 어디서나 학사활동이 가능한 U-캠퍼스를 체험했다.

가블러 판사, 갈등조정 워크숍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5월 28일부터 29일 이틀에 걸쳐 본교 5층 강의실3에서 독일 법원 부장판사이자 세계적인 갈등조정전문가인 가블러(Gabler) 판사를 초청해 '갈등관리 조정의 방법과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러 가지 갈등조정 방법 중에서 '절제(Moderation)'를 통한 방법과 전략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특히 사례중심과 비디오 촬영을 통한 세부분석(Micro Analysis) 등 최신 독일 상담자 실습 교수법을 제시함으로써 상담전문가, 조직관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세계적 돌봄 권위자 바바라 도시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10일 서울 미아동 캠퍼스에서 전인적 돌봄(Holistic Care)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바바라 도시 박사전 멕시코대 총장을 초청해 '글로벌 건강서비스에 대한 통합 및 전인적 접근(Integral and holistic perspectives in healthcare and global health)'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보건행정학과가 주최한 이번 특강에서 바바라 도시 박사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강관리 및 환자돌봄에 대해 접근하며, 전인적 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자기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했다.



인천 '제7캠퍼스' 지역학생 위해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서울사이버대학교는 6월 12일 지역에 거주하는 재학생들에게 질 높은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번째 지역캠퍼스인 '인천 캠퍼스'를 개관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천·부천 지역 재학생 활동과 인원수, 지리적 위치 등을 파악, 이번에 인천캠퍼스를 설립하게 됐다. 한편, 그동안 타

이재웅 총장, 재학생과 집짓기 봉사활동



사회복지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헤비타트 동아리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천안시 목천면에 소재한 '희망의 마을'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이 전과 달리 이재웅 총장과 함께 총학생회 임원, 그리고 졸업생들의 직장 동료들이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힌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부부 행복 지침서 펴낸 엄정희 교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노력”이 더 중요



인생의 넷째 계절을 지나고 있다는 심리상담학과 엄정희 교수는 36년차 소문난 잉꼬부부로서의 이론과 경험을 담아 『17일간의 부부행해 내비게이터』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대학 때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50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상담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를 케어하고 있다.

엄정희 교수는 책을 통해 열악한 고용과 육아 환경 속에서 결혼 자체를 포기하거나, 배우자와의 잘못된 소통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과 부부에게 행복한 관계를 위한 팁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관계를 도미노에 비교한다. 도미노의 맨 앞 블록이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자신부터 변화해야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엄 교수는 공감 기법 3가지를 알려준다. 상대의 눈을 맞추는 '아이 투 아이(eye to eye)', 고개를 끄덕여주는 '나딩(nodding)'과 '허밍 사운드(humming sound)'를 통해서 자신이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보이라고 강조한다. 늦게 시작한 상담학 공부로 새로운 비전을 향해 분주히 달려가는 엄정희 교수는 이 책의 인세 전액을 장애우 빵공장 '뜨랑슈아' 슈을 만드는 데 기증할 계획이다.

2010 신입교수



김요원 교수

- 가족상담학과
- 연세대학교 교육학박사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 역임
- 서울가정법원 심리상담전문가



이진경 교수

- 부동산학과
- 서울대학교 도시공학박사
- 서울특별시청 주택국 주택연구팀장
- U-City World Forum 자문위원 역임



김 환 교수

- 상담심리학과
- 서울대학교 심리학 박사수료
-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 서울 임상심리연구소 소장 역임



김윤나 교수

- 사회복지학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지원센터 연구위원
- 중앙대 등 강사



김현아 교수

- 상담심리학과
- 경북대학교 상담심리학박사
- 통일부 하나원 심리상담사
- 노동부 대구중부 고용안정센터 전임상담원

6.2 지방선거에서 본교동문 대거 당선

지난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 동문들이 대거 당선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상모(대구 달서구 구의원, 부동산학과 졸업), 황복순(경기 구리시 시의원, 사회복지학과), 심형기(강원 홍천군 군의원, 법무행정학과 졸업), 박종현(서울 구로구 구의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김은한(경북 안동시 시의원, 부동산학과 졸업), 김병철(인천 서구 시의원, 법무행정학과 졸업), 이강림(경기 포천시 도의원, 경영학과 졸업)



이재웅 총장, 『부동산개발기획론』 발간



이재웅 총장이 부동산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부동산개발기획론』(부연사 발행)이란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부동산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는 현시점에 부동산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한다.

권기남 교수, 공저 및 논문 발표



복지시설경영학과 권기남 교수는 2월 『부모교육』(학지사 발행), 『영유아수과학지도』(교문사 발행) 등 2종의 저서를 공저로 발간했다. 또한 『대안가정학』 48권 2호에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선정 교수, 『한국인사행정론』 발간



법무행정학과 김선정 교수가 한국 인사행정의 전반을 다룬 『한국인사행정론』(한국학술정보, 2010)을 발간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개발·관리·통제하여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인사행정의 정의부터 공무원의 효율적인 한국의 인사행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김영민 교수, 물류관련 논문 발표



국제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사)국제e-비즈니스학회가 2010년 3월 발간한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1호에 <e-learning에서 물류사례 중심 학습이 물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나승성 교수, 『회사법 개설』 발간



법무행정학과 나승성 교수는 4월 20일 상법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제시한 『회사법 개설』을 출간했다. 이 책은 상법의 입문서라는 시각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학설위주의 설명은 배제하고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한 체계로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따라서 흐름의 맥을 끊는 학설의 논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학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다수설이나 통설을 위주로 하여 상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서용수 교수,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제 선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지원하는 2010년 교육용 콘텐츠 개발과제에 본교 '투자심리학을 만나다' 교과목이 선정되었다. 이번 개발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서용수 교수(책임연구원),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공동연구원),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공동연구원)와 개발업체 위즈콘이 참여한다.

이향아 교수, 논문 발표 및 작품 출품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사)한국디자인진흥회가 발간하는 『한국디자인포럼』 제27호에 <원격강의 중 디자인 실습교과목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요소 분석>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한국콘텐츠학회가 주최한 2010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Exhibition에 전시작품을 출품했다.

차명희 교수, 작품 출품 및 심사위원 위촉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10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Exhibition에 <High-Tech Friends> 제목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또한 1년간 한국산업기술재단(KOTEF)의 골드카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10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모집

온라인 인프라 구축한 미래 교육의 산실 서울사이버대학교



100억 원 콘텐츠 개발비 투자, 첨단 멀티미디어기법 강의 도입

군경상담학과 등 이색학과 주목, 해외대학 교류 활발

장학금 수혜율 1위, 재학생 만족도 90% 상회

2000년 국내 최초 온라인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평생교육의 동반자이자 세계적인 e-learning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성인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0년 6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반기 신·편입생 총 1,005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모집학과는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사회과학부(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등 5개 학부 14개 학과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학사편입전형, 산업체·군위탁생전형, 장애인전형 등으로 나눠 총 1,00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교에서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 취득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apply.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입학문의 : 02-944-5000